

보호시설 가출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사회인구학적 특징, 지능, 뇌기능과의 관계

곽 영 숙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정신과학교실

Abstract

The relation between abuse and socio-demographic factors, intelligence and brain function in sheltered runaway adolescents

Young-Sook Kwak

Departments of Psychiatry,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Jeju, Korea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telligence, brain function and abuse experience in sheltered runaway adolescents and also to exam the relation between them. And the ultimate purpose is to offer basic data which are needed in establishing comprehensive protection policy in sheltered runaway adolescents. 128 adolescents who stayed in the runaway shelters were investigated. Basic questionnaire about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 developmental history, family environment, and abuse experience, were asked to complete by themselves and 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K-WAIS), Bender-Gestalt Test(BGT) were carried by a psychologist. The most common age of the subjects was 15 years old. The first runaway episode was most common in the middle school period, and mostly their runaway was repeated. Sexual abuse history was more frequent in female, and emotional abuse was more frequent in male. Physical abuse was more frequent in 12-15 years old group and sexual abuse was more frequent in 16-21years old, group. Emotional abuse was most frequent in whom the first runaway episode were occurred in elementary school period. Physical abuse was most frequent in whom repeated runaway. In intelligence test, 22% of subjects was mentally retarded. Emotional abuse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decrease of verbal intelligence scores, and sexual abuse was significantly related with decrease of performance intelligence scores. In BGT, 39.4% of subjects manifested brain dysfunction signs and mean error score significantly higher in adolescents with history of emotional abuse, sexual abuse and neglect. Abuse experience were significantly more frequent in runaway adolescents than in general adolescents. And this result caused various harmful effect in cognitive brain function. To prevent this and to provide protection policy for runaway adolescents, more active investigation about the abuse history and early family intervention are needed. (J Med Life Sci 2009;6:104-112)

Key Words : Runaway adolescent, Abuse, Brain function

서 론

청소년 가출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족 내의 여러 문제점들이 가출을 유도한다. 가출 청소년의 25%이하만이 두 명의 부모를 두고 있고¹⁾, 가출 청소년의 10%정도에서는 부모상이 내재화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²⁾. 한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의 44%가 국가 보조를 받는 모와 함께 살고 있었고³⁾, 가족 내 양부모가 있었던 경우가 21%, 가출하기 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거

나 전학을 하였던 경우가 각각 55%, 43%였다⁴⁾. 부모의 개인적인 문제도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Robertson⁵⁾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의 60%정도에서 적어도 한 명 이상의 부모가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또는 범죄자였고, 약 25%에서는 어머니가 17세 이하에 자녀를 출산하였다고 한다⁶⁾. 그리고 가출 청소년의 어머니는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의 어머니에 비해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질 가능성이 높는데⁷⁾, 이들 가출 청소년의 37%에서 부모가 집에 없었던 적이 있다고 하였고 17%는 감옥에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청소년의 1/3에서 가출하기 직전에 부모가 직장을 잃었다고 하였다⁸⁾. 이런 가출 청소년 가족의 또 다른 특징은 갈등이 많다는 것이다. 거의 반수에서 부모와 청소년 사이 뿐 아니라 부모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⁹⁾. 그래서 일부에서는 가출이라는 행동 반응 자체가 청소년의 주변 환경을 모델로

Address for correspondence : Young-Sook Kwak
Department of Psychiatry,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66 Jejudaeakno, 690-756, Jeju, Korea
E-mail : yskcpy@jejunu.ac.kr

삼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가출 청소년의 39%에서 가출 형제가 있었고 16%에서 가출한 부모가 있었다. 결국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상당수는 부모에 의한 학대와 방임을 보고하고 있다¹⁾. Robertson⁵⁾에 의하면 가출 청소년의 37%에서 신체적 학대를 경험하였고 또 다른 10%에서는 성학대를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명백한 학대 이외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모로부터 받는 따뜻함이나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⁶⁾. 요약하면 대체로 이러한 가정들은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가 빈약하고 부모들은 그들 자신의 결혼 생활, 약물 남용, 그리고 범죄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청소년들은 원하지 않는 가족이었다는 느낌을 갖게 되면서 가족 내 다른 문제들의 희생양이 되고 이러한 아이들은 종종 가족 구성원에 의한 방임뿐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성적 학대를 받게 된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이후 아동 학대에 관한 국내의 관심이 증가되어 왔으며 학대의 현황을 비롯하여 학대의 개념적 접근의 연구, 학대의 원인과 결과, 학대의 예방 및 대책 방안 등 다양한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학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유아나 초등학교 아동에 집중되어 왔으며⁷⁾, 청소년에 관한 학대 연구는 성학대에 관한 조사나 학교 폭력의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져 왔을 뿐 이에 대한 연구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청소년 학대의 심각성은 서구의 연구들이 지적하듯이 청소년의 피학대경험이 학업성취도를 낮추며 비행이나 일탈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⁸⁾, 국내의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호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있는 가출 청소년의 입소원인이 방임, 기아, 미아, 학대의 순으로 나타나 시설에 보호중인 청소년의 대부분이 학대나 방임의 결과로 입소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⁹⁾.

그러나 최근까지 학대받은 '아동'이 아닌, 학대받은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거의 간과되어 왔다.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힘, 체중, 신장, 연령으로 인하여 학대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또한 학대를 받지 않기 위해 가출하거나 또는 학대를 피해 스스로를 지키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호시설에 거주하거나 입소하고 있는 청소년의 사회 인구조학적 특성, 지능, 뇌기능 및 학대 경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향후 보호시설 가출 청소년에 필요한 포괄적인 보호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청소년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만 12세에서 21세까지의 남녀 청소년 1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성비로 남자 66명, 여자 62명이었으며, 대상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은 15.42 ± 1.75 세였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 6개소에서 남자 50명, 여자 27명이었고, 경기(성남) 1개소에서 남자 12명, 여자 4명이었고, 경남(창원) 1개소에서 여자 20명이었고, 제주 2개소에서 남자 5명, 여자 4명

이었고, 충북(청주) 1개소에서 여자 6명이었다. 연구에 참가한 128명 중에서, 119명이 기초설문조사와 학대에 관한 설문지를 완성하였고, 임상심리사와 청소년간의 일대일 검사를 통해 100명이 지능검사를 시행하였고, 89명이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시행하였다.

2. 연구 방법

보호시설 전문 상담원의 상담 기록 및 관찰 내용과 대상자 자신의 기록을 통해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조학적 특성, 발달력, 가정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를 하였고, 학대 여부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대의 후유증을 알아보기 위해 기질적 정신장애 평가검사인 벤더-게슈탈트검사(BGT), 지능검사인 한국웬슬리지능검사(K-WAIS)를 조사하였다.

주요검사도구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설문조사

기초설문조사는 사회인구조학적 설문, 가출과 관련된 설문, 술 및 약물경험에 대한 설문, 법적 문제와 관계된 설문, 학대와 관계된 설문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사회인구조학적 설문에서는 성별, 연령, 학교 중단 시 학년, 가족의 생활정도,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학교중단 유무, 보호자의 직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출과 관련된 설문은 첫 가출시기, 가출횟수, 가출기간, 가출동기 중 가족요인, 학교요인 및 개인 요인, 보호시설 입소시기, 현재 보호시설 입소동기, 가출 후 가졌던 직업종류 등으로 구성되었다. 술 및 약물경험에 대한 설문은 약물경험 유무, 약물사용정도, 약물종류, 술을 마신 경험 유무, 술을 마신 횟수, 음주량 등의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적 문제와 관계된 설문은 법을 어긴 적이 있는지, 법을 어겨서 받았던 처벌의 종류, 돈을 받은 성행위 유무 등의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 학대에 관한 설문

학대와 관계된 설문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등 4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신체학대는 총 7문항이며 손으로 얼굴, 머리, 귀 때리기, 내던지거나 때려눕히기, 주먹으로 때리거나 심하게 걷어차기 등 구타 3문항과 마구 두들겨 패기, 목 조르고 위협하기, 고의로 화상 입히기, 흉기로 위협하기 등 폭행 및 상해 4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총 7문항 중 1문항이라도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행한 경우는 신체학대로 간주하였다. 정서학대는 욕하거나 악담 퍼붓기, 바보나 게으름뱅이라고 부르기, 어디로 보내버리거나 내쫓겠다고 말하기 등 3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정서학대의 경우 각 빈도를 점수화 하여 3문항의 총점이 20점 이상인 경우를 정서학대로 간주하였다. 즉 최근 1년 동안 정서학대 행위를 20회 이상 한 경우를 의미한다. 방임은 5문항이 포함되며, 아이 혼자 집에 두기, 사랑한다는 말이나 표현 없기, 필요한 음식 주지 않기, 필요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기, 술이나 약에 취해 자녀를 돌보지 않기 등이 속한다. 방임의 경우 정서학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최근 1년 동안 20회 이상 행한 경

우를 방임으로 간주하였다. 성학대는 가족이나 기타 타인으로 부터 성추행이나 성관계를 당한 것으로 2문항으로 구성된다. 이중 최근 1년 동안 1회 이상 발생한 경우를 성학대 받은 것으로 간주하였다¹²⁾.

3) 한국웍슬러지능검사(K-WAIS)

K-WAIS는 WAIS-R (1981)을 염 등¹³⁾이 표준화하였고, KEDI-WISC는 박 등¹⁴⁾이 WISC-R (1974)를 표준화하였다. 한국 웍슬러지능검사(15세 미만은 한국교육개발원 웍슬러 아동용 지능 검사인 KEDI-WISC)는 지능 수준을 신뢰성 있고 타당하게 평가해 줄뿐만 아니라, 임상 장면에서 정신 병리와 뇌기능 장애를 평가하고, 개인의 성격적인 측면과 내적인 갈등을 이해하는데 있어 귀중한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개인 간 비교뿐만 아니라 개인 내 비교도 가능하며, 점수에 근거한 양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반응 내용에 따른 질적인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능 검사는 6개의 언어성 검사와 5개의 동작성 검사로 구성되고, 언어성 검사에는 '기본지식, 숫자외우기, 어휘, 산수, 이해, 공통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작성 검사에는 '빠진곳 찾기, 차례 맞추기, 토막 짜기, 모양 맞추기, 바퀴 쓰기'가 포함된다. 언어성 소검사 평가치들을 합산하여 언어성 지능지수(Verbal IQ)를, 동작성 소검사 평가치들을 합산하여 동작성 지능지수(Performance IQ)를 산출하며, 전체 소검사 평가치들을 합산하여 전체 지능지수(Full Scale IQ)를 산출한다.

4) 벤더-게슈탈트검사(Bender-Gestalt test, BGT)

벤더-게슈탈트검사는 Laretta Bender가 Gestalt 심리학에 근거하여 고안한 일정한 기하학적 도형을 피검자로 하여금 모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기질적 정신장애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나, 현재는 뇌손상이나 시각-운동 협응에 대한 평가 외에, 성격 평가를 위한 투사적 기법 등 다양한 목적으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시각 운동 협응 능력에 대한 채점은, 도형 모사에서 각 도형마다 해당되는 채점 기준이 있어 각각의 도형을 모사할 때마다 채점 범주에 해당되는 오류들을 범할 경우에 각각 1점씩 받게 되며, 9개의 도형을 모사 시에 보인 오류수를 합산하여 전체 오류점수를 산출 한 후, 이를 연령 규준과 비교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오류 점수를 근거로 대상 청소년들의 시각-운동 협응 능력 정도를 평가하였다.

3. 통계

SPSS/PC(+) 8.0을 이용하여 검사도구의 각 임상척도들을 분석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K-WAIS와 BGT의 학대와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와 ANOVA를 시행하였다.

결 과

1. 검사결과

1) 학대 경험

대상 청소년의 학대 경험의 특징은 Table 1A와 같다. 신체학대에서 신체적 학대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이 93명(86.1%) 높은 비율을 보였다. 정서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1명(45.2%)이었고, 부모로부터 방임을 경험한 가출청소년이 44명(41.5%)이었다. 성학대 경험이 있는 가출청소년이 36명(31.8%)이었고, 성학대의 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77명(68.2%)으로 나타났다.

Table 1A. 학대 유무

		수(%)
신체 학대	예	93(86.1%)
	아니오	15(13.9%)
정서학대	예	51(45.2%)
	아니오	62(54.6%)
	방임	44(41.5%)
	아니오	62(58.5%)
성학대	예	36(31.8%)
	아니오	77(68.2%)

Table 1B. 학대 빈도에 따른 분포

		(%)			(%)
신체 학대	방임	0	15(13.8%)	0	20(18.9%)
		1	4(3.7%)	1	3(2.8%)
		2	5(4.6%)	2	2(1.8%)
		3-5	11(10.2%)	3-5	8(7.6%)
		6-10	24(22.3%)	6-10	8(7.6%)
		11-20	30(27.8%)	11-20	21(19.8%)
		20 이상	19(17.6%)	20 이상	44(41.5%)
정서 학대	성학대	0	13(11.5%)	0	77(68.2%)
		1	6(5.3%)	1	7(6.2%)
		2	4(3.5%)	1 이상	29(25.6%)
		3-5	9(8.0%)		
		6-10	8(7.1%)		
		11-20	22(19.5%)		
		20 이상	51(45.1%)		

2) 지능검사 결과

지능검사 각각의 척도차원에서 보면 언어성 지능이 81.48이었고, 동작성 지능이 89.70이었으며, 전체 지능은 83.22였다(Table 2). 정신 지체에 해당하는 전체 지능 70이하 범위 수준을 보인 청소년은 22명(22%)이었고, 71점 이상에서 90점 사이의 경계선 상에 있는 청소년은 43명(38%)이었다. 그 외 경도 정신지체는 16명이었고, 중등도 정신지체는 6명이었다.

Table 2. 지능

지능	평균 ± SD
언어성 지능	81.48 ± 17.96
동작성 지능	89.70 ± 18.58
전체 지능	83.22 ± 18.55

3) 벤더-게슈탈트검사(BGT) 결과

BGT에 응답한 청소년 89명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들 청소년 중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이상을 보인 청소년은 35명(39.4%)이었다.

Table 3. BGT능

	(%)
정상	54(60.6)
경증의 뇌기능 장애	32(36.0)
중등도의 뇌기능 장애	3(3.4)

2. 학대와 사회인구학적 변인 및 BGT, K-WAIS와의 상관관계

1)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학대와의 관계

사회인구학적 요인과 학대와 관계를 살펴보면 성별에서 여자 청소년의 경우 남자에 비해 성학대가 많았고, 남자 청소년의 경우는 여자에 비해 정서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중단유무에 따른 학대를 살펴보면 방입에서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교를 중단하지 않는 경우 보다는 학교를 중단한 경우에 방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학대를 살펴보면 신체학대, 성학대에서 유의미한 수준이 나타났는데, 신체학대는 16세-21세 보다 12세-15세 연령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 성학대는 12-15세 보다는 16-21세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Table 4A, 4B).

Table 4C.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학대의 상관관계(지속)

		학대									
		정서학대	F	신체학대	F	방입	F	성학대	F		
부의 학력	초등 졸(N=26)	3.00±1.38	1.18	2.42±1.51	1.13	2.73±1.51	1.41	.57±.90	.17		
	중등 졸(N=14)	2.07±1.63		1.76±1.64		2.07±1.73		.57±.85			
	고등 졸(N=31)	2.54±1.54		1.87±1.25		2.41±1.52		.48±.81			
	대 졸(N=6)	2.50±1.64		1.66±1.36		1.33±2.06		.33±.81			
모의 학력	초등 졸(N=10)	3.00±1.24	1.73	2.40±.96	2.22	2.12±1.45	.85	.50±.84	1.03		
	중등 졸(N=19)	2.10±1.55		1.72±1.60		2.10±1.82		.57±.90			
	고등 졸(N=29)	2.48±1.59		2.00±1.27		2.44±1.66		.44±.82			
	대 졸(N=4)	3.75±.50		3.50±.57		3.50±1.00		1.25±.95			
첫 가출 시기	초등학생	3.03±1.37	a	2.77±1.23	a	2.84±1.43		.62±.90			
	중학생	2.75±1.46	ab	2.12±1.24	ab	2.42±1.54		.56±.87			
	고등학생	1.93±1.38	2.70*	b	1.50±1.16	4.50*	b	2.13±1.50	1.82	.75±.93	.49
	기타	4.00±.00	a	2.66±1.52	a	4.00±.00		.00±.00			
	가출한적 없음	2.00±1.58	b	1.12±1.12	b	1.77±2.10		.66±1.00			

Table 4A.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학대의 상관관계

	성별			학교 중단		
	남(N=54) (M±SD)	여(N=58) (M±SD)	T	예(N=50) (M±SD)	아니오(N=55) (M±SD)	T
정서학대	3.07±1.27	2.34±1.55	9.26*	2.76±1.47	2.58±1.48	.00
신체학대	2.32±1.24	2.00±1.36	.03	2.36±1.21	1.94±1.36	.75
방입	2.82±1.55	2.20±1.54	.11	2.63±1.21	2.38±1.72	6.11*
성학대	.30±.70	.81±.94	28.73†	.64±.89	.55±.88	.25

* P < 0.05 † P < 0.01

Table 4B.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학대의 상관관계(지속)

	연령		T
	12-15(N=65) (M±SD)	16-21(N=54) (M±SD)	
정서학대	2.80±1.38	2.56±1.58	3.83
신체학대	2.27±1.15	2.02±1.47	6.54*
방입	2.57±1.53	2.44±1.63	.68
성학대	.46±.81	.71±.93	7.17*

* P < 0.05

표 4C에서 가출과 관련된 요인들과 학대와의 관계에서,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그리고 가출기간과 학대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수준이 나타나지 않았다. 첫 가출시기와 가출횟수에서 유의미한 수준을 보였는데, 첫 가출시기를 살펴보면 첫 가출 시기가 고등학교 때인 것보다는 초등학교 때일 경우 정서학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학대 면에서 초등학교 때 가출한 경우가 가출하지 않을 때 보다 신체학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출횟수에서는 신체학대에서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가출횟수가 1회인 경우보다 5회-10회 이상인 경우에 더 많은 신체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C. Continued

		학대							
		정서 학대	F	신체학대	F	방임	F	성학대	F
가출 횟수	1	2.57±1.46		1.58±1.04	b	2.38±1.75		.15±.50	
	5이하	2.42±1.56		1.84±1.34	ab	1.89±1.55		.75±.96	
	5 - 10	2.90±1.34	.41	2.50±1.26	3.27*	a	2.84±1.50	.59±.90	2.11
	10이상	2.72±1.54		2.57±1.28	a	2.62±1.93	1.41	.72±.91	
가출 기간	1주이내	3.05±1.39		2.47±1.12		2.46±1.55		.64±.93	
	1주-1달	2.10±1.68		1.57±1.53		1.77±1.80		.40±.75	
	1달-6달	2.63±1.32		2.27±1.06		2.62±1.39		.62±.90	
	6달-1년	3.07±1.25	1.16	2.33±1.15	1.53	2.75±1.42	1.71	.38±.76	.93
	1년 이상	2.90±1.70		2.72±1.61		2.72±1.48		.69±.94	
	기타	3.00±1.52		2.75±1.39		3.57±.78		1.14±1.06	

* P < 0.05

표 4D에서 약물경험 유무에 따른 학대를 살펴보면 정서 학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약물경험이 없는 경우보다는 약물경험이 있는 경우에 정서학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술을 마신 경험유무에 따른 학대를 살펴보면 성학대에서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나타나서 성학대를 받은 청소년이 성학대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술을 마시는 경향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법적 문제와 관련된 요인에서는 학대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수준이 나타나지 않았다.

2) K-WAIS와 학대와의 관계

지능과 학대의 관계에서, 전체 지능은 학대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소검사 중에서 언어성 지능 영역에서는 정서학대, 동작성 지능영역에서는 성학대에서만 유의미한 수준으로 차이를 보였다(Table 5A.).

3) BGT와 학대와의 관계

BGT와 학대와의 관계에서,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를 경험한

Table 4D. 사회인구학적 특징과 학대의 상관관계(지속)

	약물 남용		T	약물남용의 횟수		T
	예(N=16) (M±SD)	아니오(N=95) (M±SD)		1 - 5 (M±SD)	6회이상 (M±SD)	
정서학대	3.00±1.15	2.63±1.52	7.19*	2.72±1.27	3.50±.57	3.61*
신체학대	2.33±1.17	2.12±1.34	.58	2.00±1.24	3.00±.81	1.71
방임	2.18±1.64	2.55±1.56	.05	2.45±1.69	1.50±1.73	.00
성학대	.56±.89	.58±.87	.02	.63±.92	.00±.00	18.81*
	알코올 섭취		T	법적 문제		T
	예 (M±SD)	아니오 (M±SD)		예 (M±SD)	아니오 (M±SD)	
정서학대	2.60±1.49	2.59±1.59	.39	3.04±1.37	2.46±1.50	3.67
신체학대	2.09±1.39	2.19±1.20	1.33	2.46±1.30	1.93±1.30	.02
방임	2.39±1.61	2.38±1.53	.17	2.60±1.57	2.39±1.59	.32
성학대	.71±.93	.34±.71	16.56?	.50±.83	.64±.91	2.84
	금전적 이득을 위한 상관계		T			
	예 (M±SD)	아니오 (M±SD)				
정서학대	1.87±1.64	2.73±1.46	.14			
신체학대	2.12±1.55	2.17±1.31	.02			
방임	2.42±1.71	2.48±1.57	.16			
성학대	1.00±1.00	.52±.85	1.01			

P < 0.05, † P < 0.01

Table 5A. 지능과 학대의 상관관계

		지능					
		언어성 지능	T	동작성 지능	T	전체 지능	T
정서학대	예(N=48)	87.57±21.33	5.41*	80.58±18.04	.003	81.79±19.99	1.18
	아니오(N=40)	90.37±14.49		82.47±17.78		84.00±16.54	
신체학대	예(N=73)	82.31±18.03	.22	89.75±17.86	.84	89.75±17.86	.14
	아니오(N=11)	81.00±18.06		80.90±33.50		80.90±33.50	
방임	예(N=50)	84.38±19.52	1.31	78.68±17.23	.40	79.10±18.22	.27
	아니오(N=33)	95.96±15.33		86.21±19.09		89.03±18.62	
성학대	예(N=31)	88.71±20.07	2.58	81.28±19.53	6.05*	82.77±20.29	4.02
	아니오(N=57)	90.63±15.31		83.90±13.62		84.87±14.27	

* P < 0.05

가출 청소년에서 학대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BGT상 평균 오류 반응 점수가 의미 있게 높은 소견을 보였다(Table 5B).

Table 5B. BGT와 학대의 상관관계

		BGT	
		BGT	T
정서학대	예(N=44)	.56±.62	12.47*
	아니오(N=35)	.25±.44	
신체학대	예(N=66)	.39±.55	1.34
	아니오(N=9)	.66±.70	
방임	예(N=44)	.52±.62	8.75*
	아니오(N=31)	.29±.46	
성학대	예(N=52)	.48±.61	8.41*
	아니오(N=62)	.26±.45	

* P < 0.05

고 찰

신체 학대 경험이 있는 가출 청소년은 86.1%, 정서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가출 청소년은 각각 45.2%, 41.5%였고, 성학대를 경험한 가출 청소년은 31.8%이었다. 가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학대 원인으로 신체 학대가 가장 많았다는 보고들¹⁾이 있는데, 본 연구의 신체 학대에서 다른 학대에 비하여 학대를 받은 군이 받지 않은 군보다 훨씬 많은 표본 수를 보인 점은, 이러한 보고들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체 학대의 경우 1회 이상의 학대경험이 있을 때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였는데, 학대를 경험한 대다수에서 낮은 빈도보다는 수 회 이상의 빈도가 많아 반복적인 학대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학대에서도 한 번의 성학대 경험보다는 1회 이상의 반복 경험이 더 흔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 내 학대의 특징이기도 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정서 학대와 방임의 경우, 학대 기준으로 설정된 20회 이상의 학대를 경험한 경우가 20회 미만의 학대 경험을 한 경우보다 많은 수를 보이고 있어 정서학대와

방임이 없었던 경우보다는 있었던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서학대와 방임 모두 11회에서 19회 사이의 빈도도 2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 빈도는 학대 기준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실제 이들 청소년에게 있어 학대의 가능성은 상당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실제로는 정서학대와 방임의 빈도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학대 유무 기준의 적절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들은 보호 시설에 입소한 가출 청소년의 신체학대를 47%로 보고하고 있는 외국의 결과¹⁵⁾보다는 다소 높은 수치이다. Janus 등¹⁶⁾과 Silbert 등¹⁷⁾의 연구에서는 가출 청소년에서의 성학대 빈도를 50% 이상이라고 보고하였지만, Tyler 등¹⁵⁾의 연구에서는 29%를 보고하고 있어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15-16세의 보호시설을 찾은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¹⁸⁾에서는 67%가 신체학대, 42%가 정서적 학대, 48%가 방임, 21%가 성학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고, Goodman¹⁹⁾에 의하면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출 청소년의 89%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학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에서 정서 학대가, 여자 청소년에서는 성학대의 경험이 많았으며, 학교를 중단한 경우에서 방임의 경험이 많았는데, 이는 지속적인 무단결석 허용이나 특수 교육적 필요에 대한 무관심 등과 같이 교육적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한 교육적 방임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12-15세 사이에서 신체학대, 16세-21세 사이에서는 성학대의 경험이 많았고, 이는 아무래도 2차 성장 등 신체적인 변화와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초등학교 때 첫 가출을 한 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때 첫 가출을 한 청소년에 비해 정서학대가 많았고, 또 이들에게는 가출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신체학대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출 시기가 이룰수록 정서학대나 신체학대가 많았는데, 이는 가출 시기가 이룰수록 학교 문제나 개인의 정서적 문제보다는 가족 내의 문제점 등으로 현실 도피의 방법으로 가출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가족 내 다른 문제점들의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가출 횟수가 많을수록(1회인 경우보다 10회 이상에서) 신체

학대가 많았고, 약물 경험이 있는 경우 정서 학대의 경험이 높았다. 성학대를 받은 청소년에서 술을 마시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성학대의 후유증으로 많이 보고되고 있는 약물이나 알코올 남용과의 상관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을 어긴 여부나 돈을 받는 성행위 유무는 학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지능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지능과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모두 정상 범주이지만, 정신 지체에 해당하는 청소년이 22%로 높게 나타났다. 가출 소아를 대상으로 시행된 지능과 관련한 미국의 연구에서는 지능 발달의 지연을 보고하였고, 독일²⁰⁾과 콜롬비아²¹⁾의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이 정상 범주였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다소 일치하지 않는 소견을 보였지만, 16-21세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총 지능지수가 보통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서²²⁾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동작성 지능은 언어성 지능보다 이전의 학업이나 사회경제 상태에 대해서 덜 영향을 받기에 가출 청소년에서는 언어성 지능보다 동작성 지능이 보다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 다른 연구에서도 동작성 지능이 언어성 지능보다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이었다. 그리고 전체 지능을 비교해 볼 때, 22%가 70이하로 정신지체 소견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2%로 보고된 정신지체 인구 비율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가출 청소년들의 인지 저하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지능검사와 학대와의 상관관계를 볼 때, 전체 지능은 학대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지능검사 중에서 언어성 지능은 정서 학대를 받은 경우에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동작성 지능은 성학대를 받은 경우에 유의미하게 낮은 소견을 보였다. 국내의 한 연구에서 학대받은 아동들의 자아기능 정도를 평가를 위해 KEDI-WISC를 실시한 결과, 전체 지능과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 모두 보통 수준의 하단에 속하였고, 각 소검사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보통하 수준에서 보통 수준에 속하고, 이중 상식 소검사가 경계선 수준으로 지체되어 있었으며, 학대 빈도와 지속성의 경험 정도에 따라서 전체 지능, 언어성 지능, 동작성 지능과 각 소검사 지능들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²³⁾. 비행 청소년 집단에서 정신병리와 학대 기왕력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²⁴⁾에서는 학대력이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 사이에 KEDI-WISC 검사상 지능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외국의 연구에 의하면 동작성 지능 중에서도 문화적인 영향을 가장 적게 받으면서 일반적인 인지기능을 대표하는 토막짜기가 높게 측정되었고, 과거의 학습 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기본지식이나 산수아형에서 낮게 측정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동작성 지능과 언어성 지능만을 비교하였기에, 이에 대한 차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BGT와 학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를 경험한 가출 청소년에서 BGT상 오류 반응 점수가 의미 있게 높은 소견을 보였는데, 이는 시각운동협응 능력의 장애나 뇌기능 장애가 더 많을 가능성을 의미한다²⁵⁾. 즉 학대를 받은 아동에서 지능 뿐 아니라 시지각운동협응 능력 같은 뇌기능의 장애가 있을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위에서 언급한 홍²⁴⁾의 연구

에서 학대력이 있는 비행 청소년에서 학대력이 없는 청소년보다 위스콘신 카드분류 검사 상 더 많은 오류점수를 보인 것과 일치하는 소견이다. 뇌기능 장애와 신체학대의 연관성에 관해 보고한 연구들은 많은데 본 연구에서는 특히 정서학대, 방임, 성학대 모두에서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나타낸 것이 의미가 있겠다. 오히려 본 연구에서는 신체 학대에서만 학대 유무에 따른 두 그룹 간의 의미 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두 그룹 간 표본수의 차이가 너무 큰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점에서는 통계학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결과들은 향후 연구가 보다 큰 표본수의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동시에 일반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대와 인지기능과의 관계를 보고한 외국 연구에 의하면, 소아 청소년기에 학대를 경험한 어른들에서 전체 지능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언어성 기억력에서는 유의한 저하를 보였고²⁶⁾, 소아 청소년기 학대와 방임을 경험한 군에서는 전체 지능과 읽기 능력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되어 있으며²⁷⁾, 학대라는 극단적인 스트레스가 뇌발달 프로그램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²⁸⁾. 학대 경험이 있는 경우 전반적으로 지적 및 인지 기능의 결함과 관련되고 높은 발달 지연과 중추 신경계 장애를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그 인과 관계에 대해 설명하기는 아직 확실치 않고 이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의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학대의 경험으로 인하여 인지 기능이라는 기본적 발달상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가족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시행되어야 한다. 최근에 가출 청소년의 급격한 증가는 가족을 지지하는 사회 서비스 시스템에서의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가족을 건강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가족 일상을 반영하는 다양한 사회 복지 프로그램들이 역기능적인 가족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10회 이상의 만성적인 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가족 환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청소년이 한번 가출하였다면 재발 방지 개입이 희망이 있을 수 있지만, 4-5번 이상의 가출 과거력이 있다면 이미 가출이 하나의 대처 방식으로 고착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변화를 위한 개입에 저항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첫 가출에 대해서 가족과 협력하여 강력하게 대처함으로써 재가출로 이어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학대 과거력 및 학대 노출의 위험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학대 후유증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기 개입과 함께, 정신 병리에 대한 조사와 서비스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대 경험이 있는 많은 가출 청소년들은 신체적 정서적 상처를 입었고, 어른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집으로 돌려보내 지더라도 재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들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서 어른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불신이 이들 청소년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적응의 한 방편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가정 내의 착취와 학대 유형이 이들이 가출을 하게 되면서 심각하고 누적되는 발달학적 결과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높고, 조기 개입 프로그램은 가정 내의 착취와 학대의 경험이 가출 후에도 반복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출 청소년에서는 성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은 경험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서 현저히 높았고, 이런 학대의 결과는 이른 성적 접촉의 시작 및 다른 행동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에, 피임 등을 포함한 성교육뿐 아니라 학대의 결과로 나타난 정서적인 문제나 감정 장애, 또는 자살 충동 등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치료 프로그램들이 함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제한점은 중복 학대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지 못한 점과 학대를 받은 시기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한 조사 및 보다 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며, 여기서는 가출 청소년의 과거 학대 경험을 조사하였는데, 가출 전과 후의 학대 빈도나 종류, 가해자 유형 등의 변화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연구목적: 보호시설에 거주하거나 입소하고 있는 가출 청소년의 학대 경험실태를 파악하고 이들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지능, 그리고 뇌기능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향후 보호시설 가출 청소년에 필요한 포괄적인 보호대책마련에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만 12세에서 21세 사이의 남녀 청소년 12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보호시설 전문 상담원의 상담기록 및 관찰 내용과 대상자 자신의 기록을 통하여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발달력, 가정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조사와 학대 여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임상심리사에 의한 한국 웨슬러지능검사(K-WAIS), 벤더-게슈탈트검사(BGT)를 시행하였다.

결과: 보호시설 가출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학대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여자 가출 청소년의 경우 남자에 비해 성학대가 많았고, 남자 가출 청소년의 경우 여자에 비해 정서학대가 높게 나타났다. 학교를 중단한 경우에 정서학대가 많았고, 신체학대는 12-15세 사이에 많았으며, 성학대는 16-21세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 가출시기가 초등학교 때로 어릴수록 정서학대가 많았으며, 가출 횟수가 5-10회 이상으로 많을수록 신체학대가 많았다. 정서학대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언어성 지능의 유의미한 저하가 보였고, 성학대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 동작성 지능의 유의미한 저하가 관찰되었으며, BGT상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의 과거력이 있는 청소년들에서 평균유류 반응 점수가 의미 있게 높게 나타났다.

결론: 가출 청소년들의 학대 경험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현저히 높았고, 이런 학대로 인한 지능과 뇌기능상의 후유증이 유발될 수 있기에 이를 예방하고 포괄적인 보호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학대여부에 관한 적극적인 조사와 함께 가족에 대한 조기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1) Shaffer D, Caton D. Runaway and homeless youth in New York City : A report to the Itteson Foundation. New York : Itteson Foundation, 1984.
- 2) General Accounting Office. Homelessness ; Homeless and runaway youth receiving services at federally funded shelters. Washinton DC: Athor, 1989.
- 3) Rotheram-Borus MJ, Koopman C, Ehrhardt AA. Homeless youths and HIV infection. Am J psychol 1991;46:1188-97.
- 4) Rotheram-Borus MJ, Rosario M, Koopman C. Minority youths at high risk: Gay males and runaways. In: Colton ME, Gore S. editors. Adolescent stress: Causes and consequences. New York: Aldine de Gruyter, 1991:181-200.
- 5) Robertson MJ. Homeless Youth in Hollywood: Patterns of Alcohol Use. A Report to the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 (Report No. C51). Berkeley: Alcohol Research Group. 1989;16:415-52.
- 6) Shane PG. Changing patterns among homeless and runaway youth. Am J Orthopsychiatry 1989;59:208-14.
- 7) Rotheram-Borus MJ, et al. Barriers to successful AIDS prevention programs with runaway youth. Washington, DC: CASSP technical Assistance center, Georgetown University Child Development Center, 1989.
- 8) Englander SW. Some self reported correlates of runaway behavior in adolescents females. J Consulting and Clin pathol 1984;52:484-5.
- 9) Kim KI, Ko BJ. An Incidence Survey of Battered Child in the two Elementary Schools of Seoul. The Mental Health Research Institute. 1987;6:66-81.
- 10) Curtis GC. Violence breeds violence - perhaps? Am J Psychiatry 1963;120:386-7.
- 11) Cho HS, Kwon JS. A Study on the Abuse Syndrome of Youth in Residential Institution. Korean J Youth Studies 2002;9:211-31.
- 1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National Survey of Child Abuse and Outcome of Abuse, 2000.
- 13) Yum TH, Park YS, Oh KJ, Kim JK, Lee YH. Sex differences on intelligence based K-WAIS standardization date. Korean J Clin Psychology 1992;11:11-21.
- 14) Park KS, Yun JR, Park HJ, Park HJ, Kwon GM. KEDI-WISC manua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1987.
- 15) Tyler KA, Cauce AM. Perpetrators of early physical and sexual abuse among homeless and runaway adolescents. Child Abuse Negl 2002;26:1261-74.
- 16) Janus MD, Burgess AW, McCormack A. Histories of

- sexual abuse in adolescent male runaways. *Adolescence* 1987;22:405-17.
- 17) Silbert MH, Pines AM. Sexual child abuse as an antecedent to prostitution. *Child Abuse Negl* 1981;5:407-11.
 - 18) Powers JL, Eckenrode J, Jaklitsch B. Maltreatment among runaway and homeless youth. *Child Abuse Negl* 1990;14:87-98.
 - 19) Goodman LA. The prevalence of abuse among homeless and housed mothers: a comparison study. *Am J Orthopsychiatry* 1991;61:489-500.
 - 20) Arnold MA, Braband H. Social situation, orientation and personality aspects of juveniles without homes. *Z Klin Psychol Psychother* 1977;25:246-55.
 - 21) Aptekar L. Colombian street children: gamines and chupagruesos. *Adolescence* 1989;24:783-94.
 - 22) Rohde P, Noell J, Ochs L. IQ scores among homeless older adolescents: Characteristics of intellectual performance and associations with psychosocial functioning. *J Adolesc* 1999;22:319-28.
 - 23) Ahn DH. Complications of abuse in children reported as abused children. *The National Survey of Child Abuse and Outcome of Abu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0.
 - 24) Hong KE. The correlation between psychopathology and abuse history in delinquent adolescents. *National Survey of Child Abuse and Outcome of Abu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0.
 - 25) Kim MK, Shin MS. A Preliminary Study of the Korean Developmental Norms and the Clinical Utility of the Bender-Gestalt Test for Children. *Korean J Clin Psychology* 1995;14:149-60.
 - 26) Bremner JD, Randall P, Scott TM, Capelli S, Delaney R, McCarthy G, et al. Deficits in short-term memory in adult survivors of childhood abuse. *Psychiatry Res* 1995;59:97-107.
 - 27) Perez CM, Widom CS. Childhood victimization and long-term intellectual and academic outcomes. *Child Abuse Negl* 1994;18:617-33.
 - 28) Koenen KC, Mpfitt TE, Caspi A, Taylor A, Purcell S. Domestic violence in associated with environmental suppression of IQ in young children. *Dev Psychopathol* 2003;15:297-311.